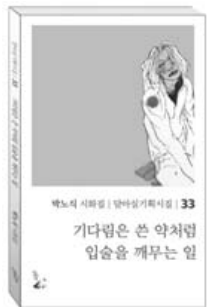


# 꽃시...꽃말...꽃그림... 우리네 자화상을 그려내다

●박노식 시인 첫 시화집 '기다림은 쓴 약처럼 입술을 깨우는 일' 발간

“산과 들, 강을 오가며 눈으로 확인했던 꽃들의 꽃말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시를 창작했습니다. 꽃말을 시로 쓰고 또 이를 그림으로 그려낸 특별한 시집이기에 더욱 기쁜 마음입니다.”



총 37개 시편마다  
김상연 화가 꽃 그림 수록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서  
내달 2-14일 시화전도

2015년 53세라는 늦은 나이에 등단해 지난 9년 동안 총 5편의 시집을 펴내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박노식 시인이 첫 시화집 '기다림은 쓴 약처럼 입술을 깨우는 일' (달아살림)을 출간했다.

이번 시화집에는 각 편마다 꽃말을 제목으로 하고 부제로 꽃 이름을 단 총 37편의 시가 수록됐다. 이와 함께 각 시편마다 김상연 서양화가의 그림이 곁들여져 꽃시와 꽃말, 꽃그림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다.

박 시인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꽃에 투영했고,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회자되면서 꽃말로 굳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며 “꽃 너머 꽃말 그리고 그 너머 우리 모

두의 자화상을 그려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집에 수록된 37편에는 전부 ‘그녀’, ‘당신’, ‘그대’와 같은 인정대명사로 꽃을 형상화하고 있다.

작품 ‘봄꽃’은 자신을 발견해준 누군가에게 전하는 이야기와 같다. 시인은 ‘기쁜 소식’을 뜻하는 꽃말처럼 마치 ‘그날 그가 내게로 와서 가슴이 별이 되어준 운명’이라고 말한다.

이밖에도 시집에서는 ‘기다림’을 의미하는 파초나 ‘섬세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의 부용화 등 다양한 꽃들이 시인만의 언어로 우리에게 색다른 감동을 준다.

박 시인은 “전형적인 시와는 달리 꽃에 대한 상징, 시와 그림이 세 가지가 어우러졌기에 더욱 의미있는 결과물인 것 같다”며 “독자들이 37개의 꽃과 꽃말을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투영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집 발간과 함께 특별한 시화전도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시집 제목과 같이 ‘기다림은 쓴 약처럼 입술을 깨우는 일’이라는 주제로 박 시인과 김 화가의 전시가 다음달 2일부터 14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열린다. 시화전 오프닝 및 출판기념회는 다음달 2일 오후 6시다.

시화를 선보이는 김 화가는 “기존 시화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그림, 화가의 눈으로 시를 재해석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며 “시화집에 인쇄된 그림과 원화가 주는 느낌은 또 다른 것이니 전시에서 직접 감상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상국 시인은 시집에 대해 “박노식의 시는 편편마다 정제된 언어와 고도의 압축을 통한 깊이로 때로는 숙연하고 때로는 간절하고 애달다”며 “울퉁불퉁한 삶의 길을 돌아눕듯



김상연작 '봄꽃' 중 일부

이로 시를 쓰는 시인에게 위로와 격려의 봄을 보낸다”고 평했다. /최명진기자

## 새로 나온 책



▲사랑 사건 오류=김나현 저자  
장편 소설 '사랑 사건 오류'는 은하, 수호, 라이라는 세 사람을 축으로, 세 겹의 세계로 이뤄진,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구조가 예상치 못한 작품이다. 집작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 깨지는 독서 경험을 소설 안에서 여러 번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가장 특별한 점일 것이다. 퍼스널 챗봇, 자동 창작 프로그램, 실감형 게임 등 우리에게 낯설지만은 않은 기술들이 설득력 있게 활용된다. 각각의 세계에서 미지의 존재로 등장한 두 인물의 이야기가 새로이 덧붙으며 소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말로 이어진다. /문학동네·1만7천500원



▲북극에서 얼어붙다=마르쿠스 렉스·마를레네 괴링 지음, 오공훈 옮김  
얼음이 얼지 않는 따뜻한 북극을 상상해 본 적 있는가. '북극에서 얼어붙다'는 지구에서 가장 빠른 기후변화 현상인 북극 연구를 위해 전 세계 최고 과학자들이 규합한 지상 최대 프로젝트, 모자익 원정대의 탐험 일지다. 이 책은 얼음 없는 북극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으며, 인간 활동이 지구 기후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 참예하게 밝히고 있다. 모자익 원정대가 촬영한 117장의 도판과 북극 칼바람처럼 신선하고 날카로운 필체로 담아낸 330여 일의 기록은 우리를 북극 한복판으로 데려다 놓는다. 이 책은 근현대 역사가 형성한 추상화된 북극의 견고한 이미지에 도전한다. /동아시아·3만2천원



▲피아노 조율사=귀창성 지음, 문현선 옮김  
타이완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 귀창성의 장편 소설 '피아노 조율사'가 국내에 처음 소개됐다.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지닌 한 피아노 조율사와 아내를 잃고 나서야 그녀와 자신의 인생을 비로소 돌아보게 된 사업가가 함께 '피아노'를 찾아가는 궤적을 따르고 있다. 1990년대 말을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은 동성애자인 주인공이 출신 계급의 한계, 정체성에 대한 혼란 등을 겪으며 예술의 극치인 '무아'를 추구하는 과정을 담아낸 아름다운 음악 소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비극적인 운명,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성에 대한 집요한 탐구, 그리고 고삶의 마지막 구원에 대한 결말의 암시는 뜨거운 감동을 남긴다. /민음사·1만5천원



▲숲속 재봉사의 옷장=최희량 저자  
꽃잎과 씨앗으로 만든 옷으로 세계 집의 매력을 담아낸 그림책 '숲속 재봉사의 옷장'이 출간됐다. 이 책은 동물들이 식물 옷을 입고 숲에서 함께 놀며 우정을 쌓아 가는 모습을 그린다. 평면과 입체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콜라주 그림으로 식물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들여다보게끔 한다. 섬세한 사진 작업으로 책 속 다양한 요소들의 입체감을 잘 살렸으며 반페이지 접지를 활용해 옷장 문을 직접 여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창비·1만6천원

## 경이로운 자연 풍광에 매료...지구 반대편 남미 여행기

문병채 포토에세이 '남미를 노래하다' 출간



“인터넷에 없는 나만의 경험과 느낌을 전하기 위해 남미 여행을 떠났습니다.”

에콰도르 카토에서 브라질 마나우스까지 남미 전역을 순례한 60일간의 대장정을 담은 책 '남미를 노래하다' (샘물출판)가 출간됐다.

20년 간 운영해온 회사를 정리하고, 4년 전부터 여행과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는 저자 문병채(68)씨는 남미 6개국(에콰도르·페루·볼리비아·칠레·아르헨티나·브라질) 100곳의 풍광을 600여장 사진과 98편의 문장으로 갈무리해 이색적인 여행기로 꾸몄다.

문 씨는 2018년과 2023년 두 차례 남미 여행을 했으며, 그때 찍은 사진과 글을 모아 380여쪽 분량의 포토에세이로 엮었다. 이 책은 교통·숙박·카페 등 관광 정보에 치중하는 일반적

인 여행기와 달리 현지에서의 느낌을 서정적인 이미지와 언어로 풀어낸 점이 특징이다. 남미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보다는 이미 다녀온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순간을 회상해 볼 수 있도록 했다.

그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로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와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사막을 꼽았다.

문 씨는 “드넓은 초원의 거친 야생성과 소금으로 이뤄진 독특한 모래평원이 빚어내는 자연풍광에 오감이 압도됐다”며 “경이로움이 가득한 마추픽추, 이과수폭포, 모레노빙하도 빼놓을 수 없는 여행지”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자기 감정이 많이 개입될수록 추억을 소환하는 힘이 커진다”며 “나만의 여행기”를 쓰고자 하는 여행자를 위해 ▲경비 지출에 인색하지 말 것 ▲여행기간을 한달 가량 넉넉하게 잡을 것 ▲계절을 다르게 일정을 선택할 것 등 세 가지 팁을 소개했다.

문 씨는 “경비를 아끼기 위해 목적 관광지와 먼 곳에 숙박할 경우 일출·일몰 등 경절적인 장면을 놓치게 되고, 여행기



간이 짧을 경우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며 “또한 여름과 겨울로 계절을 달리 해야 극적인 대비효과를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최신 휴대폰으로 바뀌 선행한 사진을 찍을 것, 가급적 마음에 맞는 사람과 여행할 것도 함께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여행은 시간이 지나면 그리움이 되고, 그리움이 깊어지면 강렬한 추억이 된다”며 “조만간 중국과 동아시아 실크로드 여행에서 보고 들은 한민족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명진기자

##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 상주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국 944-0993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묘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